



데이터베이스월드뉴스

Database World News



국내뉴스 (Domestic)

국정뉴스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번호체계 개선안 연내 마련

- PCS번호 · 지역번호광역화 · 통일후 번호 방안 등

정보통신부는 개인별로 전화번호가 부여될 PCS(개인휴대통신) 등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출현과 남북통일 등에 대비해 전기통신번호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금년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한국통신이 승인을 요청한 전화지역번호광역화계획도 전반적인 전기통신번호체계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종합 검토해 연말까지 결정하

기로 했다.

정통부는 지역번호를 전국 시·군단위 1백 46개에서 광역시·도단위 15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국통신 지역번호광역화계획과 관련,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같은 전기통신번호체계 개선을 위해 학계, 연구계 및 관련업계 전문가 9명으로 개선전담반(반장 이재태 정통부 부가통신과장)을 구성했다.

개선전담반은 PCS와 위성통신등 신규서비스 출현, ISDN(종합정보통신망) 번호체계, 통일후의 번호부여방안 등을 반영하고 지역번호 광역화방안등을 검토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번호체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광역화는 이용요금, 통화권, 신규서비스용 번호수수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되며 남북통일후의 번호부여방안은 현재 서울과 평양의 지역번호(2)가 동일한 점등을 감안해 우리측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전국 산하기관 연결한 통합망구축

- 정부 부처중 최초 · 오는 7월 시범망 개통

정보통신부가 정부 부처중 처음으로 서울 본청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산하기관들을 컴퓨터 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해 전자우편, 전자결재 등 전국 규모의 사무자동화를 실현하는 통합망구축에 나섰다. 국내 정보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응, 국가행정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통합사무자동화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입찰을 실시, LG정보통신을 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통합망은 우선 정통부 본부와 전산관리소(서울 구의동), 서울·부산·전남 등 3개 지방체신청에 각각 LAN(근거리통신망)을 구성하고 이를 WAN(광역통신망)으로 연결해 자동보고체제등을 갖춘 시범망을 구축, 오는 7월 개통할 계획이다.

충청·전북·경북·강원·제주 등 나머지 5개 지방체신청등은 일단 WAN으로 연결한 후 내년부터 LAN을 본격 구축하게 되며 정보통신 공무원교육원,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조달사무소 등은 전화망을 통한 PC접속으로 수용된다. 서버용 전산기설치를 비롯해 전자우편·전자결재 등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LAN장비를 이용한 통합망구축으로 정통부는 부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정부 부처와 정부투자기관들도 정통부를 모델로 전국 규모의 통합사무자동화망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정보통신 추진계획’ 해설서 배포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단은 3월 14일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해설서를 발간해 배

포하고 있다. 해설서는 총 6백20여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약 1백90여쪽은 종합추진계획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서술식으로 작성했다. 또 초고속정보통신 관련위원회, 전담조직현황, 법령현황, 각종 시범사업 관련자료, 종합추진계획의 영문해설과 주요선진국의 초고속 관련계획에 대한 원문 및 번역판을 4백30여쪽의 부록에 담았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시행령 발효

전기통신기본법 및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등록제였던 부가통신(VAN)사업이 신고제로 바뀌었다. 또 LG·삼성·동양 등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 규정도 없어져 전화사업의 경우 종전 3%에서 10%로, 비전화통신사업은 10%에서 33.3%로 지분참여율이 높아졌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과 각각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최근 입법에고한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인 “전화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중 신고대상 기준을 “당해 기간통신사업자 시장점유율 10% 이하에 대해 5% 미만의 요금차이”로 규정한 것을 재조정하고 있어 시행규칙 시행은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보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각각의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 음란, 퇴폐 등과 같은 내용을 심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통신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의 지분제한 규정도 없애 전화사업의 경우 종전 3%에서 10%로, 비



전화통신사업은 10%에서 33.3%로 통신장비업체들의 지분참여가 늘어나게 되었다.

■ 통상산업부

공업발전법 대상업종 40개 추가

음식식품제조업, 운수장비임대업, 패션디자인업, 광고물작성업 등 40개 업종이 산업발전법의 대상업종에 추가로 포함돼 각종 금융·세계 혜택을 받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산업발전법 대상업종을 현재 12개에서 52개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업기반기술 향상에 필요한 컴퓨터설비 자문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베이스업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대거 산업발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영상산업발전을 위해 영화제작업 및 관련서비스업과 영상프로그램제작업도 포함시켰다.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 사업 확대 추진

과기처는 5만 1천 6백 88명의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KRISTAL) 전산망으로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과기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에는 대학(1만 7천 79명), 정부출연 및 국·공립연구소(4천 6백 87명), 기업부설연구소(2만 4천 1백 67명) 등 국내 과학기술자 총 4만 5천 9백 33명과 미국(4천 3백 19명), 일본(1천 4백 36명) 등에 있는 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 5천 7백 55명 등 모두 5만 1천 6백 88명에 관한 정보가 수

록되어 있다. 과기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중국 과학기술자 5천 5백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8천 5백명의 정보를 보강하고 오는 '96년에 국내외 과학기술자 1만명에 관한정보를 보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지만 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은 결과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해 정보를 준 과학기술자들이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외한 30여가지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 법제처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완료

법제처는 초고속정보화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수립 이후의 법령연혁, 행정심판재결례, 법제 연구자료 및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 활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올 상반기중 행정종합전산망과 하이텔, 천리안 등 민간 상용전산망을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정부수립 이후 제·개정됐거나 폐지된 법률연혁 원본 4천 5백건(6만 5천페이지)과 행정심판재결례 4천건, 외국법제연구자료 및 법률도서 2만 권이 입력돼 있다.

■ 특허청

특허출원서 전산이미지화

특허청이 국내에 출원된 특허출원서 전문을 이미지스캐닝 방식으로 전산입력해 광과일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해 지난 '47년부터 '94년까지 공고된 특허명세서 전문 8만여건을 전산이미지 입력(광파일화) 시킨데 이어 올해는 연말까지 특허 거절사정분 5만건, 심사 미청구분 7만건 등 총 12만건을 광파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심사관들이 특허 심사자료 검색시 책자 또는 카드 형태의 심사참증자료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아보던 것을 컴퓨터 단말기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계나 일반 발명가들도 일일이 공보책자 등을 열람하지 않고 특허청 단말기를 이용,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특히 통신망이 연결되는 '96년부터는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별도로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 전문도 별도로 구독해 오는 '98년까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한편 특허출원서를 요약해 심사관이나 업계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두 초록화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중이다.

공공뉴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장에 손봉호씨 선출

- 음성 및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 구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4월 1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제1차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손봉호 경실련공동대표, 부위원장에 송기방 변호사와 신범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사무국장은 손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현호중 정보통신진흥협회 상무이사가 임명됐다. 윤리위는 이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회칙과 하부조직인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절차, 심의기준등을 정한 정보통신윤리심의 규정을 각각 의결하고 음성 및 비음성정보 심의위원회 위원 각 9명을 위촉했다. 윤리위와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윤리위원회는 정·부위원장에 안병희(서울대교수), 이어령(이화여대 석좌교수), 강지원(사법연수원교수), 인보길(조선일보상무), 나형수(KBS해설위원장), 이연숙(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용서(쌍용컴퓨터사장), 이철수(한국전산원장), 이성해씨(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 음성정보심의위원(9명)

이재태(정통부 부가통신과장), 이승규(문체부 어문과장), 윤방부(연세의료원 가정의학과장), 전원책(변호사), 권이현(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 김옥순(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실장), 김기태(방송개발원 방송정책연구실장), 김남호(서울공보사: 음성정보사업자), 김태설(한국통신 고도통신사업국장).

● 비음성정보심의위원(9명)

이재태(정통부 부가통신과장), 이주현(외국어대 교수), 강성(변호사), 김민선(천리안 주부동호회장), 이상길(한국PC통신협의회장), 성재수(정보교사단 위원장), 최병요(한국PC통신), 이한순(큰틀 대표), 손영수(DB진흥센터 부장).

■ 한국통신

통합데이터통신망 7월 가동

한국통신망은 현재 개별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통신망을 상호 연동한 통합데이터통신망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그린네트라는 이름으로 제공될 이 서비스는 한국통신이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각종 데이터통신망은 물론 민간 부가통신(VAN)사업자들이 구축한 데이터망을 모두 연동하여 팻키지화 하는 것이다.

그린네트에 연동되는 기간 데이터통신망은 한국통신의 하이네트P를 비롯, 기업통신망(CO-LAN), 인터넷망(KORNET) 등이다. 또 그린네트에 연동되는 민간 데이터망은 삼성데이터시스템, LG-EDS시스템, 에이텔 등이 운용하고 있는 데이터통신망이다.

하이텔단말기 내달 6만대 추가보급

- 기존단말기 무료정비, 하이콤도 50만개 보급

한국통신은 하이텔, 천리안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하이텔 단말기 6만대를 5월 1일부터 전국 전화국을 통해 선착순으로 무상 임대해 준다.

또 기존에 보급된 22만대의 하이텔단말기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무료정비를 실시하며 비디오텍스(화상정보)용 통신소프트웨어인 하이콤(버전 3.0)도 올해 50만개 목표로 전화국에서 디스켓으로 무상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보급되는 단말기는 그동안 3차례의 기능 개선을 거쳐 파일편집, 저장, 송수신, 화면저장 기능 등을 갖추고 자판의 크기가 노트북 수준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하이텔단말기 보급대수는 '91년 4만 5천대, '92년 2만 5천대, '93년 3만 5천대, '94년 11만 5천대에 이어 모두 28만대로 늘어나게 됐다.

전화가입자는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전화국에 가서 신청하면 단말기를 임대받

을 수 있으며, 하이텔서비스 이용요령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하이콤은 '92년 20만개, '93년 30만개, '94년 40만개를 포함해 모두 1백 40만개의 디스켓이 보급되고 하이텔서비스(접속번호 01410)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받은 경우도 작년까지 55만건에 이어 올해 30만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란전화 발신추적, 7월부터 전국확대

오는 7월부터 도청소재지 등 전국 22개 주요 도시에서 월 3천원정도의 부담으로 음란·폭력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자추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사장 조백제)은 지난해 6월말부터 서울등 일부지역 20개 전화국에서 무료로 시범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7월부터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고 유료화 하기로 했다. 이용료는 월3천원선에서 결정,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이텔 회수대행서비스” 오는 6월부터 시행

한국통신은 민간데이터베이스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제공자(IP)의 과금방식을 종량제로 모두 바꿔 이용자로부터 정보이용료를 대신 받아주는 “하이텔회수대행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한국통신은 하이텔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데이터베이스업체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정보이용요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각 전화요금 청구서에 IP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하이텔 정보요금 회수대행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이텔 가입자번호(ID)에 부과해오던 각 IP들의 정보이용료가 하이텔을 이용

하는 전화번호에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통신은 정보이용료 회수대행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88개 전화국에 1백 63대의 정보이용시간을 계산하는 통신처리시스템(ICPS)을 설치, 두달간의 신뢰성 확보기간을 거쳐 과금업무를 대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금방법으로는 체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은 정보이용료를 민간데이터베이스업체들이 통보해 오면 이를 사용자의 전화요금에 합산시켜 과금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으며, 대행서비스 요금은 정보이용료의 10%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첨단종합통신기업으로 이미지 변신

한국통신은 통신분야의 시장개방압력에 대비하고 21세기 고도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의 기본통신 사업자에서 첨단 종합정보통신 사업자로의 이미지변신을 추진한다.

한국통신은 초고속망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전념하는 공익기업상과 최첨단 기술우위기업 및 국민기업으로의 이미지를 굳힌다는 방침아래 “첨단기업 이미지 홍보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이에따라 무궁화위성이 발사되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수퍼커뮤니케이션 하늘에서 열린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및 모형로켓 제작 및 발사대회를 개최하고 KBS와 공동으로 무궁화위성 홍보만화영화를 제작 방송하기로 했다.

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수퍼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초고속정보통신 시범 전시관을 운영하는 한편 첨단정보화기업 및 가족선발대회도 개최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수퍼커뮤니케이션 땅에서도 열린다”는 내용의 수퍼커뮤니케이션 현장 견학

행사 및 수퍼커뮤니케이션 이용사례공모와 관련 홍보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다.

■ 한국전산원

디지털서명 표준 개발

한국전산원(원장 이철수)은 전자통신연구소(ETRI)와 공동으로 디지털서명에 관한 표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전산원은 이에따라 전자서명 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은 ETRI가 담당하고 해시(Hash)함수를 이용한 문서데이터 압축 및 코드관리 프로그램 개발부문은 한국전산원이 각각 담당키로 했다. 한국전산원과 ETRI는 지난 달에 디지털서명의 알고리즘에 관한 요구조건 및 기준확정과 이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달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알고리즘 공개모집 및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알고리즘의 요구조건 및 기준사항의 만족·안전성·실용성·호환성·특허문제 등에 관해 공개검토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최종 알고리즘을 선정할 방침이다.

DB뱅크

■ 데이터콤

“상표정보”와 “병무정보”, 새로운 정보 추가

천리안 “상표정보”에서 제공중인 <출원상표속보>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상표정보에서는 상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병무와 관계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병무/입영날자 안내>에서



도 새로운 병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표정보와 병무정보에 대한 정보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추가 서비스 안내

- 1) 상표정보(go tm)-(주)인텔리스, (주)인피니트그룹 제공
 - 서비스 위치 : 천리안 TOP 메뉴 15번 '경제/산업' 부문 7번 '특허/규격/상표' 중 4번 '상표정보' 선택
 - 추가 내용 : 출원상표속보
- 2) 병무/입영일자 안내(go mil)-병무청제공
 - 서비스 위치 : 천리안 TOP 메뉴 17번 '공공/지역' 부문 2번 '중앙행정기관' 중 9번 '병무/입영일자 안내' 선택

국가별기업정보(KOMPASS)

- 미국, 유고슬로비아 등 추가
국가별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KOMPASS 기업정보>는 기존 50개국 기업정보에서 새로이 "미국", "유고슬로비아", "핀란드"를 추가하여 총 53개국의 기업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세계 기업들의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국가별 해외 기업정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서비스명 : KOMPASS 해외 기업정보 (go kompass)
천리안 TOP 메뉴 15번 '경제/산업' 부문 25번 'KOMPASS 해외 기업정보' 선택
- 2. 기업체 정보 3개국 추가 안내
- 추가 : 미국, 유고슬로비아, 핀란드
- 3. 제공기관 : 콤파스 코리아

서울지방법원 온라인 서비스 실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천리안 "서울지방법원" 서비스 코너를 마련하고 열린 법제행정을 펼친다. 서울지방법원 서비스에는 "서울지방법원 원장에게 하고픈 말"이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높아만 보이던 법원의 문턱을 없애고 법원과 시민이 하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각종 "공고(입찰/경매 등)"를 빠르게 제공하며 법률사무자동화를 위한 자료실을 마련해 각종 법률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생활 법률정보를 통해 민사와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서비스명 : 서울지방법원(go sdc)
천리안 TOP 메뉴 17번 '공공/지역'의 3번 '사법부' 선택 후 2번 '서울지방법원' 선택
- 2. 서비스 내용 : 서울지방 법원장에게 편지를
- 각종 공고(입찰/경매 등)
- 법률사무자동화(자료실 서비스)
- 우리법원 안내, 뉴스 속의 판결
- 생활법률 정보
- 3. 제공기관 : 서울지방법원

■ 한국PC통신(HITEL)

생활법률상담 - 사법연수원 개설

각종 사건/사고, 상속문제, 전세권에 대한 법적인 절차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의 생활법률상담 코너가 개설되었다. 장래의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은 독자적인 정보통신 공간인 사법연수생 열린

마당을 개설하여 법조계에 첫발을 딛는 사법연수생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줌과 동시에 사회봉사 차원의 무료법률상담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본 법률상담코너는 이용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법연수생들이 답변을 작성하고 판사, 검사들로 구성된 교수들의 감수를 거쳐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법률문제에 답답해 하던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법률상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이텔 어느화면에서든지 go lawed를 입력하거나, 초기화면에서 4.생활/문화 → 14.세무/법률 → 16.사법연수생 열린마당(생활법률상담)을 선택하면 된다.

성모병원(여의도) 의료정보 서비스 개시

하이텔 건강/의학코너에 '성모병원(여의도) 의료정보(go cmc)'가 서비스된다. 아이가 코피가 나서 멈추지를 않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나, 외상을 입었는데 지혈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이럴때 참으로 난감하다. 이런 난감함을 성모병원에서 해결해주고 있다. 성모병원(여의도) 의료정보 코너에서는 응급처치코너, 가정간호, 영양상식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학상식을 위주로 서비스한다. 또한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의 건강점수는? 코너와 현재의 증상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성모병원(여의도) 의료정보를 이용하려면 하이텔 어느 화면에서나 'go cmc'하거나, 하이텔 초기화면 → 4. 생활/문화 → 4. 건강/의학 → 4. 성모병원(여의도) 의료정보순으로 선택하면 된다.

각종 유학, 연수정보 <EF국제언어교육정보>

- "유학, 연수, 학술세미나, 청소년민박교류 안내를 한눈에"

세계화와 국제화를 준비함에 있어 이제 영어는 더이상 외국어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시대에 보다 앞서가기 위하여 많은 학생들이 해외 언어연수 및 유학을 떠난다.

이에 하이텔에서는 교육/연수분야의 세계적인 체인망을 보유하고 있는 EF를 통하여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대학 진학안내, 각종 해외연수, 각종 학술세미나, 청소년 민박교류, 영어교사 캠프, 미국 고교 교환학생 제도, 청소년세계탐방, 해외인턴 체험연수뿐만 아니라 각국 비자등에 관한 신뢰성있는 정보를 준비하였다. 서울올림픽의 공식 언어 학교를 계기로 1988년 한국에 진출한 EF는 지난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정보를 하이텔 이용자들에게 전달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5.교육/취업 → 3.진로/유학 → 11. EF국제언어교육 어학연수정보 또는 go ef

세계의 신문 잡지 안내개시

하이텔 도서 홈쇼핑가에 한국출판무역(주)의 '세계 신문 잡지 안내(go kop)'코너가 새롭게 문을 연다.

'세계 신문 잡지 안내'에서는 세계의 유명신문, 잡지를 현지에서 발행되는 즉시 매일 항공편으로 배달해 주며 세계 각 신문, 잡지에 실리는 한국관련기사 내용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빌보드차트 싱글부문 50위까지의 곡과 뉴욕 타임즈 북리뷰에 실리는 베스트셀러 15위까지를 소개해주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하이텔 어느 화면에서나 'go kop'하거나, 하이텔 초기화면 → 16. 주문/예약/홈뱅킹 → 1. 주문 → 3. 도서 → 14. 세계 신문 잡지 안내 순으로 선택하면 된다.



■ 나우콤(나우누리)

새로운 부동산 정보 <모델하우스/임대사무실> 서비스 개시

한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임대사무실' 정보가 나우누리를 통해 서비스 된다. '모델하우스/임대사무실' 서비스는 생활건물 및 각종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등 분양 및 사무실 임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힘들게 모델하우스나 현장을 찾아다닐 필요없이 화상을 통하여 평면도, 조감도, 내부사진, 약도, 분양상황을 알 수 있다.

'모델하우스/임대사무실' 서비스는 '분양 정보'와 '지역별 임대사무실 정보' 이외에도 '분양상식', '업체별 분양소식', '법률상식', '세무상식', '금융상식', '관련기관 위치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찾아보기' 메뉴에서는 찾고자 하는 정보를 지역, 평형, 아파트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임대사무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초기화면에서 '25.증권/부동산'을 선택한 후 '52.모델하우스/임대사무실'을 선택하거나 'go modelh' 하면 된다. '모델하우스/임대사무실' 서비스는 분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도서, 영화정보 서비스 개시

도서, 영화, 비디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KTP문화마을이 문을 열었다. 'KTP 문화마을'에서는 도서, 영화, 비디오에 대한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 담겨져 있다.

「도서」분야에는 소설/수필/경제·경영/인문 사회과학/시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코너마다 저자, 출판사, 내용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화」정보에는 국내/외국/홍콩 및 중국영화로 나뉘어 있으며 감독, 주연, 장르, 상영

관, 개봉일, 제작사, 내용 안내가 마련된다. 「비디오」란에는 인기순위별로 모은 렌탈 비디오, 최신비디오, KTP 추천비디오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 코너마다 감독, 주연, 출시배급사, 내용 안내가 제공된다.

「찾아보기」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극장명/영화명/도서명/저자명/출판사명으로 찾아볼 수 있다. 'KTP문화마을'을 이용하려면 초기화면에서 '22.문화/취미'를 택한뒤 '18.ktp문화마을'을 선택하면 된다. 또 어느화면에서든 go ktpcul을 입력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에이텔(POS-Serve)

POS-NET 국내 최초 고속화 서비스 개시

그동안 2400bps로만 제공되던 패킷교환망(POS-NET)이 14.4K 고속패킷교환망서비스로 전면 고속화되면서 서울 이외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광주, 인천, 포항, 광양의 7개 지역에서도 이 고속서비스를 이용 포스서브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 6배나 빨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기존의 2400bps 이용요금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평균 20%의 이용요금 절감효과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서울 (02) 565-2323 •	대전 (042) 532-2670 ••
부산 (051) 466-9565 ••	인천 (032) 868-3395 ••
대구 (053) 475-0075 ••	포항 (0562) 75-3115 •
광주 (062) 226-3085 ••	광양 (0667)790-8888 •
(• 14400 bps 제공 / •• 2400 ~ 14400 bps까지 제공)	

○ 각 지역별 고속노드 접속번호

화재발생을 대비한 '소방정보' 개시

화재발생의 유사시를 대비한 <소방정보>가 개시되었다. 불은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잘못 다루게 되면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기도 한다. <소방정보>에는 우리나라 소방관서의 소재지와 연락처, 소방관서 업무안내는 물론 화재시의 행동요령, 소화기 종류 및 사용법, 상황별 응급처치를 비롯하여 소방관계법규 안내와 소방민원 상담에 이르기까지 소방에 관련한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다.

- 서비스 개시일: '95년 4월 11일
- 서비스 위 치: 39.공공정보→소방정보
- GO 명 령 어: go kc119

매일경제, 주간매경, 시티라이프 정보 서비스

MEET(Maekyung Economic Electronic Telepress)는 경제, 경영을 중심으로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종합정보망이다.

'매일경제신문'에서 시시각각으로 전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뉴스들, 경제전문 시사잡지 '주간매경'을 통해 제공되는 증권, 부동산, 산업, 무역 등 전문정보, 생활정보 주간지 '시티라이프'의 깔끔하고 알찬 생활의 지혜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 창고이다.

그 외에도 대우증권 D-VAN이나 항공기 이착륙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MEET>는 포스서브를 통해 제공되는 게이트웨이 서비스로서, 접속하려면 초기 메뉴 31.『뉴스/기상/스포츠』에서 3.「매일경제」를 선택하거나 "go meet"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뉴스

■ 한국후지쯔

S/W개발센터 이전

한국후지쯔(대표 李璟浩) S/W개발센터가 사무환경 개선과 유저지원 체제의 강화를 위해 3월말경 방배동에서 여의도 제일증권빌딩으로 이전하고 4월12일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번 이전과 함께 S/W개발센터는 기존의 메인프레임 중심의 개발환경을 유닉스 서버 시스템과 LAN 환경으로 바꾸고, 각종 그룹웨어·이미지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종이없는 사무실에 한발 다가서는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제일증권빌딩 21층
- 전화 : 3772-6900
- 팩스 : 3772-6888

■ 쌍용컴퓨터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 「세종」개발 시판나서

지난 1984년 IBM 55XX용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개발해 선풍을 일으켰던 (주)쌍용컴퓨터(대표 金勇瑞)가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 「세종」개발을 완료하고 공급에 나선다. 쌍용컴퓨터가 이번에 공급하는 윈도우용 「세종」은 다량의 문서나 책자의 편집때 형태가 같은 페이지들의 편집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양식지정 기능과 한글, 영문에 대한 독립적 명령인식으로 우리문화에 어울리는 문서의 작성이 쉽고, 아래아한글 등 다른 워드프로세서와 호환이 가능하며, 작성된 파일의 팩스송신도 할 수 있다. 「세



중」은 또한 여러개의 문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시한 동작의 다단계기억으로 실수의 복구가 완벽하다. 단축 명령키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글 밑에 바탕그림 깔기, 글사이에 그림 및 도표 그려 넣기 등 글틀과 그림, 도표의 상호삽입과 이동, 변화, 색상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고품질의 문서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2만단어에 이르는 사전으로 한글 맞춤법은 물론 최신컴퓨터 용어까지 완벽하게 검색한다. 이밖에도 「세종」은 수식을 여러형식으로 입력, 처리할 수 있는 아래아한글 호환의 수식편집기와 3차원의 글꼴꾸미기, 문서작성에 자주 쓰이는 그림 150개 내장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다. 「세종」은 차세대 운영체제로 곧 발표예정인 윈도우 95에서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386급 이상의 PC 및 4메가바이트 이상의 메모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한국유통정보센터

유통시장 개방 대응력 제고

국내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구축을 전담, 추진해온 (재)한국유통정보센터(이사장 김상하)는 내년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내업체들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사업으로 책정,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유통정보센터는 그동안 식품업종위주로 보급돼 온 KAN코드를 의류나 제약등 비식품업체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EAN-128코드의 KS화를 통해 국내업체들이 물류정보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정보유통체계구축을 위해 그동안 디스켓

으로 제공하던 KAN데이터베이스를 VAN업체를 통한 통신 서비스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스캔데이터시범서비스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업계전문가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개방화·세계화 추세에 국내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국 코드관리기관과의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유통정보시스템관련 신기술 및 제도를 신속히 소개, 현장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산과 대구에 이어 주요 지방도시에도 KAN코드등록대행기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국외뉴스 (Foreign)

美 컴퓨서브,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작

美國의 온라인서비스업체인 컴퓨서브社가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시작한다. 英國 로이터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컴퓨서브는 1억달러에 매입한 스프라이社의 소프트웨어(SW)기술을 활용,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것이다. 컴퓨서브는 이에 따라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용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서브의 이같은 사업은 경쟁업체인 프로디지에 뒤이은 것으로, 향후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의 본격적인 인터넷접속 서비스가 예상되고 있다.

美·유럽, 정보통신 업체간 제휴 활발

美國과 유럽의 컴퓨터·통신업체간 제휴가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외신들에 따르면 IBM, AT&T, 벨 애틀랜틱 등 미국 주요 컴퓨터·

통신 업체들이 유럽 통신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편승, 이 지역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현지 업체들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美·유럽 업체간 제휴는 특히 컴퓨터와 통신을 결합한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비중을 두고 있어 이 분야 기술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컴퓨터 제조업체인 美 IBM은 이탈리아 국영 통신업체인 텔레콤이탈리아와 휴대용 컴퓨터 및 셀룰러 폰을 결합한 컴퓨터통신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兩社는 단말기 판매는 물론 텔레콤 이탈리아의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 컴퓨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美國의 지역 전화회사인 벨 애틀랜틱은 이탈리아 컴퓨터업체인 올리베티와 "인포스트라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 이탈리아에서 음성 및 데이터 전송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兩社는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오는 97년까지 1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한편 美國 최대 통신업체인 AT&T도 프랑스의 불社 등 현지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유럽 통신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어 美·유럽 정보통신 업체들의 제휴가 확산될 전망이다.

美 모토롤러, 프랑스 불사와 "파워PC" 탑재 PC개발

美國 모토롤러社와 프랑스 컴퓨터업체 불社가 "파워PC" 탑재 PC를 공동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모토롤러는 불社와 공동으로 "파워PC" 칩을 탑재한 PC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토롤러는 불社와 서버에서 휴대용 노트

북PC에 이르기까지 파워PC의 폭넓은 탑재를 검토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공동개발한 제품은 불社의 경우 파워PC 채용 PC를 자사 제품으로 판매하고 모토롤러는 OEM 방식으로 다른 컴퓨터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美國 컴퓨터업계에서는 IBM이 불社에 출자하고 있고 모토롤러의 자본참여도 최근 결정돼 이번 공동개발은 이들 兩社가 앞으로 유럽지역에서 불社를 파워PC 진영의 중심기업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日本 NEC는 최근 불社의 지분확대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파워PC 진영 참여를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日本 최대의 PC업체인 NEC가 파워PC진영에 가담하게 되면 인텔社가 지배하고 있는 현 MPU시장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워PC는 세계 MPU시장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인텔칩에 대응, IBM이 모토롤러, 애플 컴퓨터社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최근 세력확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美, 인텔, 국제 통신표준 호환 소프트웨어 개발

美國 인텔社는 국제 통신표준인 H.320을 지원하는 他社 화상회의시스템과自社 비디오 시스템 200의 호환을 가능토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발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텔 지원 단체인 퍼스널 컴퍼런싱 워크스그룹(PCWG)이 인텔 규격과 H.320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데 따라 개발된 것으로 기존 비디오 시스템 200 사용자에게 무료 제공된다고 인텔측은 밝혔다. 인텔은 이번 소프트웨어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T.120 등 여타의 규격까지 완전히 지원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내놓을 계획이다. DC